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⑪

“쌀이 없다니…”



전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뽀디봉 마을의 280가구를 대상으로 쌀 10㎏씩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한국에서 캄보디아까지 오는 길도 멀지만,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경 지대인 뽀디봉 마을까지 오는 길도 12시간이나 걸리는 먼 여정입니다. 지금은 우기 철이라 비가 내릴 때는 세상이 무너질 듯 쏟아지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시게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 쌀이 없다니요. 수레꾼 공예학교의 봉제팀원들조차 며칠치 쌀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주민들은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저장해 두었던 식량은 모두 바닥났습니다. 어렵게 마을로 돌아왔지만 농지의 절반 이상이 태국군의 비행기 폭격과 로켓 포격으로 깊은 웅덩이가 파여 벼를 심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녹말 원료인 카사바를 재배해 대부분 태국으로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국경 분쟁 이후 태국으로 가는 판매길이 사실상 막혀 버려,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확인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절박했습니다. 결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마을 대표와 상의한 끝에 현재 마을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는 280가구에 쌀 10㎏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급히 쌀을 구입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7시 30분이 되기도 전에 주민들은 뽀디봉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전날 밤 늦게까지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배급표를 나눠 줬고, 주민들은 운동장에 펼쳐 놓은 쌀 꾸러미를 안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10㎏에 불과했지만 주민들은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여러 번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어르신도, 연신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는 아주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들 앞에 섰지만 끝내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수레꾼은 이 마을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학교와 주민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황무지 같던 마을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껴 왔는데, 전쟁은 이 마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민들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통역을 맡은 직원도 함께 울먹였습니다. 잠시 운동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전쟁이 남긴 상처와 주민들의 아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쌀 배급이 끝난 뒤 주민들은 쌀자루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쌀 10㎏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식량 위기만큼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수레꾼은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쟁 이후 찾아온 이 위기를 뽀디봉 마을이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⑥ 멈추어 바라보는 지금, 법(法) 속에 법[佛法] 깃든다

부처님 가르침 스미도록 결 내어줄 터

“불법단체입니다.” 동아리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은 으레 한 번 놀라고, 곧이어 웃음을 터뜨립니다. 법을 어긴 조직[不法團體]을 떠올렸다가, 부처님의 법을 나누는 모임[佛法團體]이라는 본뜻을 알고 나면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하필 법과대학에서 이런 이름이라니, 한번 들으면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佛法團體)’의 지도법사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처님의 법을 함께 나누자는 뜻으로 스스로 지은 이름입니다. 세속의 법(法)을 배우는 이들이 부처님의 법(法)에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니, 이름부터가 이미 작은 인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지도법사를 맡았을 때는 막연한 두려움과 책임감이 앞섰지만,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이 자리가 제 삶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주는지 차츰 깨닫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시, 진로의 무게가 학생들을 짓누릅니다.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잘 배우는 법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과대 연합으로 중국 광저우 탐방을 떠났습니다. 선(禪)이 처음 꽃핀 육조 혜능 스님의 도량 남화선사를 비롯해 운문선사·동화선사·광효사를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동화선사에서는 만행 스님과의 인연으로 사흘간 템플스테이를 했습니다. 또 제주도 약천사에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근처 해군 법당인 해관사를 참배한 뒤 왕건함에 직접 올라 보는 새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을 몰랐던 학생들이 처음으로 수행이 생활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진로 무게 내려놓으며 나를 찾는 시간
일방적 지도 대신 마음 나누는 법회로
부처님과 자연스레 만나는 길 밝히리

보시를 몸소 체험하며 하심과 회향의 마음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회를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가꿔 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될 때, 학생들은 그곳을 자기 자리로 여깁니다. 때로는 법문 한 구절보다 시험을 앞두고 무겁게 가라앉은 표정 하나가 더 많은 말을 건넵니다. 그 표정을 알아봐 주는 것에서 우리의 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법사이기보다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학생들이 부처님을 어렵지 않게 친구처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당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 가는 명상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답을 손에 쥐여주기보다, 학생들이 제 물음을 스스로 끝까지 따라가도록 그 길에 등불 하나 밝혀두는 일. 그것이 법사로서 제 몫이라 여깁니다.

우리 학생들은 머지않아 세상의 법(法)을 다루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법조문 너머의 더 큰 법, 곧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법의 뿌리에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색은 옅게, 다가감은 깊게. ‘불법단체’라는 이름이 주는 작은 웃음처럼, 부처님의 법도 학생들 곁에 가볍게 머물다 어느새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장차 그들이 다루게 될 세상의 법 한 줄 한 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길어 올린 부처님의 마음이 함께 스미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학생들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동진 스님
동국대 법과대학 불교동아리 ‘불법단체’ 지도법사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㉑ 기다림 그리고 행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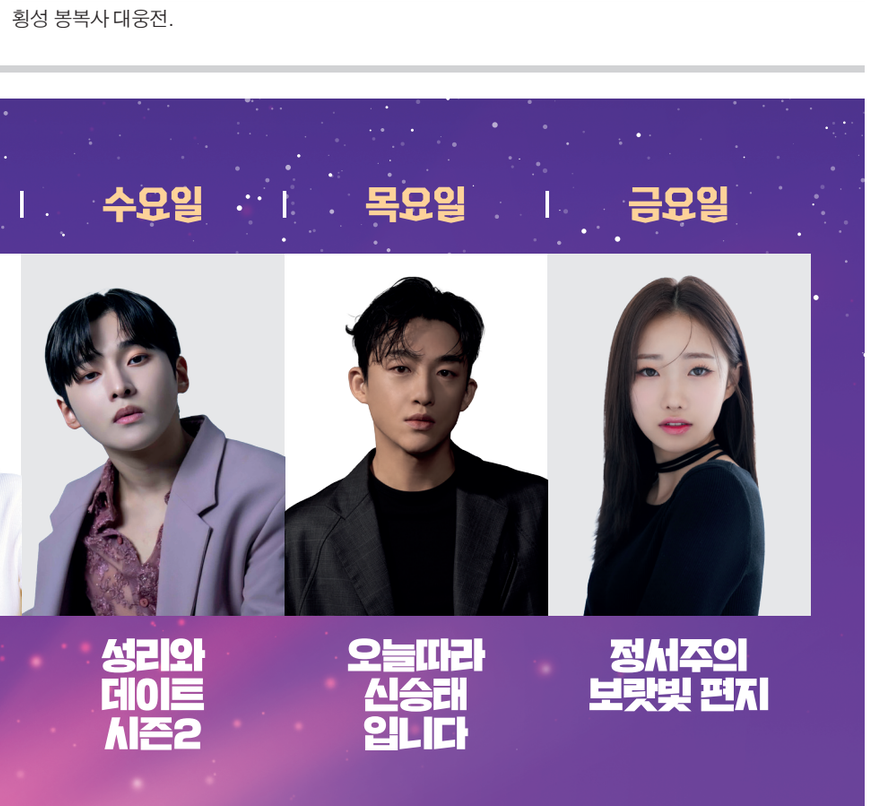
사진가는 빛을 다루는 사람이다. 목수가 나무, 제빵사가 밀가루를 다루듯이.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나무와 밀가루는 재료이지만 빛은 수단이다. 수단이라 해서 목수의 연장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진가가 다룰 수 있는 빛은 제한적이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참 많이도 그림을 찍었다. 전시회 포스터나 도록을 만들기 위한 필수 작업이다. 원본에 가깝게 찍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조명을 물감처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조명을 물감처럼 쓴다는 것은 원작의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빛을 매개로 필름 혹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왜곡을 최소화하여 원본(그림)의 이미지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진가의 의도는 ‘0’이어야 한다. 사진가는 ‘제로’ 상태에서 오로지 화가의 의도에 최대한(99.9%) 가까이 다가간다. 조명 제어는 의도 ‘0’에 수렴되는 과정이다. 이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다.

사찰의 문에 핀 꽃을 찍기 위해서는 의도 ‘0’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기다림’, 그리고 얼마일지 모를 ‘행운’이다.

손영자 작가



횡성 봉복사 대웅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트로트 가수들을 DJ로 만나는
트로트 듣기 딱 좋은시간 09:00
매일 저녁 7시 울림라디오에서 만나요!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나상도·남궁진의 쾌남열전
별빛달빛 배아현입니다
성리와 데이트 시즌2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정서주의 보랏빛 편지
지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